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의회 소식

창간사

누구나 스스럼없이 찾는 ‘人情의 도서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의회장 장 동 훈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 가듯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집 근처의 소규모 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해 이 같은 개념이 다져지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사회에서는 여전히 중·대형 공공도서관들에 밀려 작은도서관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작은 도서관은 대안적 도서관 운동으로 시작돼 200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까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 제정 이후 타지방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작은 도서관 진흥 조례’까지 만들어 작은 도서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틀까지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작은도서관이 우리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국적으로 3800여 곳, 제주지역에서 16곳의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작은도서관의 공식적 대외활동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6월 비영리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제주도내 작은도서관들은 비로소 서로 힘을 모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서 당당하게 작은도서관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제주지역 작은도서관은 일반의 중·대형 공공도서관과 달리 특정의 마을 등의 단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작은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문화여가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직접 제공, 주민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지역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 작은도서관들은 기존의 책과의 만남 공간, 즉 독서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털어내 △작가와 만남 △아동프로그램 운영 △영화 상영 △한국사 교실운영 △논술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남녀노소 모두에게 폭넓은 문화·여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질적 효과 외에도 작은도서관은 해당 지역 남녀노소를 자연스럽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으로 모으게 해 각종의 지역문제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자리함으로써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의회가 협의회 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 창립 후 4년 만에 협의회 소식지 발간이라는 첫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앞으로 협의회 회원 작은도서관들의 소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양하게 도서관 이용자와 함께 더 나아가 제주도민들에게 전파하는 계기를 갖게 돼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이번 협의회 소식지 발간을 계기로 작은도서관이 제주 전역에서 도민들 모두에게 더욱 친숙한 도민의 도서관으로 자리 굳히기를 기대합니다.

축사

지역 독서·문화 소식을 담은 정갈한 소식지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장 김 대 훈



지역 독서·문화 소식을 담은 정갈한 소식지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공존하며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 등 타지방 대도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 인프라가 부족한 제주 실정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는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21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 곳곳에 작은도서관 18개관이 도 전역에서 운영되면서 지역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도서관 자료를 통한 지식·정보 자원의 공간으로, 또는 문화·여가 공간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만 제공하는 공간에서 이용자의 학습과 문화활동,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등 문화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사회문화적 역할까지 담당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전시회 및 공연, 찾아가는 서비스를 비롯한 계층별/장르별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만남과 체험, 배움을 공유하는 융·복합 공간으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도서관 이용자들의 호응과 함께 도서관에 대한 기존의 시각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민들에게 더욱 친화적이고 지역 밀착형인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갖고 있는 접근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당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담아 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의회의 소식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크고 작은 나무와 풀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커다란 숲을 이루듯 독서 생태계가 건강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각종 연대와 공동의 협력사업을 통해 독서·문화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소식을 정갈하게 담아내는 도서관 소식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축사

문화육성의 디딤들이 되는 소식지가 되기를.....

새마을문고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장 김 순 옥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각 작은도서관 활동상황을 알리는 소식지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지역사회 문화육성의 디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소식지 발간으로 작은도서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한편 기록으로, 지역의 작은 역사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은도서관에 온 이용자들이 독서를 통해 사회의 여러 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각도 갖게 되고, 그러한 지적인 향상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발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연주 등 재능봉사를 하는 각종 문화·음악·연주 동아리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문화·예술 동아리들과 연계하여, 그들의 재능활동을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문화생활의 갈증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내는 등 도서관활동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살아가면서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전자정보매체로 인하여 책과 도서관 관련 활동이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독서는 모든 학문과 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가 되며, 나라가 부강한 나라의 기틀이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가운데 가장 고급정보를 얻는 방법은 읽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이 다른 매체보다 지식 습득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정보만이 아니라 생각하기 위함이며, 내 안으로 들어온 새로운 지식을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바로 독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펼치고 있는 독서문화운동은 미래의 제주를 변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2세들에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힘의 원천이 될 것이므로 여러분의 독서문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문화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활동이 단지 책을 읽고 시험공부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공동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작은도서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독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기사

‘작은도서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제주도서관 자료지원부장, 지방사서사무관, 정사서 1급 고 병 립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왜 이용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집에서 가깝고, 마을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혼자서 갈 수 있으니까 이용을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현상은 접근이 용이한 생활친화적인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읍, 면, 동 당 1개소씩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을 보면 주민으로서 반가운 일이다. 우리들이 바라고 요구해온 것처럼 걸어 다닐 만큼의 거리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생긴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설립 운동이 국민적 흥보를 일으키며 만들어진 ‘기적의 도서관’처럼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은도서관 설립 운동은 접근성이 어려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도서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풀뿌리 운동으로, 지역사회의 최전방에서 전개된 민간 영역의 독서운동이다.

이러한 작은도서관 운동은 기존의 공공도서관이 채워주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욕구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지자체가 앞 다투어 곳곳에 작은도서관을 짓겠다는데 작은도서관을 계속 지원할 수 있을 지 궁금하기만 하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도서관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이지만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거나 운영할 때에는 민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이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도서관 전문가들이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프로그램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개발하거나, 운영 방법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나 협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제주도의 대부분의 작은도서관들은 이러한 협력의 과정이 생략됨으로서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를 고객이라 하지 말고 ‘도서관의 친구’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친구’들은 손님이 아니라 동반자이며 주인임을 인식 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작은도서관은 곧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친구들’ 역할은 기금모금, 자원봉사, 홍보활동 등이다. 그 이유는 멀리 걸어 나가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내 마을의 문화공간이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적 지원과 체계 결여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행 작은도서관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는 “문고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국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라는 규정을 통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의 도서관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설치 등이 요구되어야 하며, 작은도서관의 운영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출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한다.

넷째,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제주도내 작은도서관은 대부분이 무보수로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고 있다.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봉사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도내 적십자사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단체’를 구성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을 공동체에서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간의 교류와 결속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한 체험, 독서지도, 숙제 등 학습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녀들을 돌보는 학습공간으로 만들고,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다양한 정보획득과 문화 활동의 공간이 되어야 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작은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설립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도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의 생활공간 속에 어린이들과 손잡고서 10분~20분 내에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가꾸는 것은 마을 주민들에게 아주 소중한 일이다.

작은도서관은 가까이서 책이나 자료 이용 등 도서관의 본연적인 기능과 더불어 가족,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지역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확대되어 마을공동체의 구심체로서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주민들이 가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꾸미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탐방기사

뿌리 깊은 한 그루의 나무, 한수풀도서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사서 **홍임정**



뿌리 깊은 나무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23년 전, 첫 뿌리를 내렸던 나무는 봄의 꽃망울과 여름의 싹, 가을의 열매와 겨울의 침묵을 되풀이하는 동안 어느덧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태양의 높은 곳을 향해 가지를 뻗어나가며, 대지의 깊은 곳을 향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이제 이 터의 일부가 되어 사람들은 이 나무에게로 와서 열매를 얻고 그늘을 빌린다. 어린 아이들에겐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주고, 어른들에겐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주며, 황혼을 살아가는 이들에겐 친근한 고향의 풍경이 되어준다. 크고 아름다운 이 나무의 다른 이름은 한수풀도서관이다.

하늘 향해 뻗어가는 가지들 같이 도서열람과 도서대출, 자료와 정보 제공 등의 한수풀도서관의 주 역할을 나무의 기둥에 비유한다면 한수풀도서관

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나무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이라 할 수 있다. 한수풀도서관에서는 독서프로그램 뿐 아니라 미술, 음악,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고, 참여율 또한 자랑할 만하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독서회 「책 먹는 아이들」과 여름방학 중에 진행되는 「여름독서캠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후활동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학교」 등이 있다. 파릇파릇한 새 잎 같은 아이들이 이와 같은 가지들에 매달려 양분을 흡수하고 자라나는 모습은 한수풀도서관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삶에 다가가 하나의 향기로운 결을 보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수풀도서관은 전통이 숨 쉬는 「갈천 공예교실」이나 「풍경이 있는 수채화교실」, 즐거운 음악이 있는 「우크렐레 교실」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만나고 호흡하고 있다. 삶의 목적인 무게를 잠시 잊고 도서관으로 발 걸음하여 가지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는 이들의 모습은 한수풀도서관의 가장 큰 결실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수풀도서관은 많고 다양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가고 있다. 그만큼 그 아래서 쉴 만한 그늘이 넓어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

또 하나의 터전을 만들며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데에는 그에 따른 어려움도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협소한 공간, 장소의 부족이었다. 특히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수풀문학의 밤」이나 「한수풀동화축제」 등을 진행하기에는 공간의 제약이 많았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바램이 해가 갈수록 점점 커졌다.

2013년 6월, 오랜 숙원이었던 한수풀도서관 다목적 강당이 드디어 신축되기에 이르렀다. '드림누리'라는 명칭의 이 다목적 강당 건립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도서관 관계자, 운영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다. 마을 어르신으로부터 강당의 터를 사기 위해 삼고초려를 붙사했던 이야기는 주위에서 익히 알려진 이야기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13년 6월 건물이 완성되었다. 2개의 프로그램실과 160여석의 좌석과 갖춘 다목적 강당 드림누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공연,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 다음은 한수풀도서관 양준혁 관장님과의 일문 일답

– 드림누리 건립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다목적 강당 건립을 위해 많은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공사를 진행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고마운 분들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목적 강당 드림누리가 완성되어 도서관건물과 형제처럼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니 무척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드림누리 한수풀도서관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 드림누리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예술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160여석의 강당에서 영화상영이나 연극, 콘서트, 등의 그 동안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컨텐츠를 많이 기획하여 운영하고 싶습니다.

– 한수풀도서관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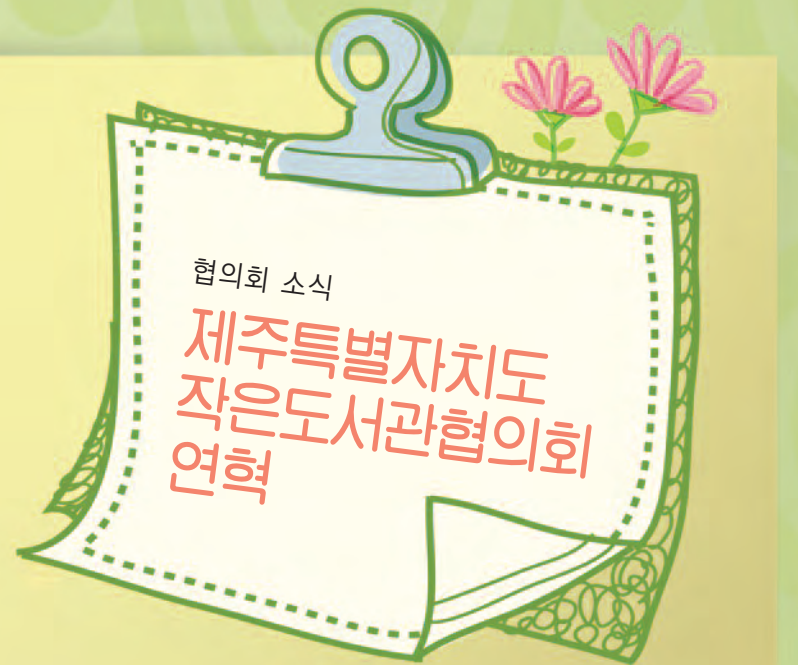
저희 한수풀도서관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일구어졌습니다. 특히 이곳 한림지역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특화시키고 싶은 계획 또한 갖고 있습니다.

– 한수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도서관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요.

한수풀도서관의 가장 큰 자랑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과 활발한 활동을 들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수풀도서관의 문턱이 낮고 열린 공간이라는 데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수풀도서관이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 '열린 도서관'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 한수풀도서관을 나서며

도서관 탐방을 마치고 나서며 문득 뒤를 돌아본다. 유채꽃처럼 노란 건물에 나무형상의 초록색 한수풀도서관 로고가 보인다. 건물의 주위로 키 큰 야자수와 싹 틔운 나무들이 6월의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다. 야자수와 건물의 키가 같다. 아마 둘은 함께 자라고 있을 것이다. 옆을 돌아본다. 푸른 창문들과 목재가 어우러진 새 건물이 있다. 드림누리다. 6월 개관식을 앞둔 건물은 아직 고요하다.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 듯하다.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소리, 문화가 꽃 피는 소리, 꿈을 키우는 소리, 미래가 자라나는 소리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커다란 한 장의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다.



2009년 6월

- 작은도서관협의회 설립(비영리법인)
- 초대회장 장동훈/간사 송춘화(보목곶터작은도서관장)

2010년

- 제4회 제주책축제 체험부스 운영

2011년

- 2대 회장 장동훈 연임
- 제1차 도서관학교 운영(사서 및 자원활동가 교육)
- 제5회 제주책축제 체험부스 운영
- 전국도서관대회 참가(도서관 직원 및 자원활동가)

2012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워크숍 참가
- 제주공공도서관협회 주관 '책 읽는 해 선포식' 참가
- 국립제주박물관 연계 '유물 속 문양을 찾아라' 행복추진 참가
- 제2차 도서관학교 운영(사서 및 자원활동가 교육)
- 그림책원화순회전시회 개최
- 제주문화예술재단 연계 아트리치'디딤돌'사업 3개관 선정

- 제주작은도서관협의회, 한라도서관 주관 2012 제1회 '책잔치' 개최
-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2013년

- 3대 회장 장동훈 연임
- 협의회 소속 도서관 : 16개관
- 한라도서관 연계 도서관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참가
- 2013 도서관 책잔치(공공도서관협의회 연계) 체험부스 운영
- 제주문화예술재단 연계 아트리치'디딤돌'사업 4개관 선정
- 도서관직원 및 자원활동가 교육(POP) 운영
- 소식지 창간(7월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의회 가입 도서관 현황

개관 순	도서관 명	면적(㎡)	장서보유 권수	개관일	운영주체	주소	연락처	개관시간 (휴관일)	관장명
1	삼양원당	173.83	9,170	2004.12.27	마을회	제주시 삼양1동 1647-4	756-4611	15:00-22:00 (월)	고상일
2	홍익	132	9,258	2008.05.15	홍익원	제주시 삼양2동	755-0844	10:00-21:00 (일)	김순실
3	와산매실	160	7,000	2008.05.18	마을회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968-8	784-4500	16:00-21:00 (수,일)	양유경
4	노형꿈틀	246.58	10,042	2008.07.12	반석교회	제주시 노형동 2520-16	748-2611	10시-19시 (일,공휴일)	임순현
5	보목꿈터	128.36	12,166	2009.03.13	마을회	서귀포시 보목동 756-3	732-3506	13:00-19:00 (일)	송춘화
6	상창바람소리	98	6,000	2009.04.04	마을회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648-1	794-9720	17:00-21:00 (월,일)	오홍남
7	금능꿈차롱	160.4	9,200	2009.12.23	마을회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371	796-1941	14:00-20:00 (금)	양민숙
8	봉성새별	129.3	5,012	2009.12.23	마을회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799-1463	14:00-19:00 (일)	양기탁
9	삼달	110	2,492	2010.03.12	마을회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724-1	782-1474	15:00-19:00 (수)	강동훈
10	동광해바른	177.3	3,672	2010.10.05	마을회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590-2	794-2287	17:30-22:00 (일)	강경준
11	일도두맹이	271.7	6,000	2011.03.11	영락복지관	제주시 일도2동 995-6	721-0599	10:00-19:00 (일)	이상언
12	오라참꽃	152.02	3,563	2011.12.03	마을회	제주시 오라로 16길 1	757-2469	14:00-19:00 (월)	김정숙
13	세화갯머리	46.5	2,150	2012.01.20	마을회	표선면 세화2리 1510-2	787-3320	15:00-20:00 (토,일)	김종관
14	신례예촌	148	3,000	2012.02.10	마을회	남원읍 신례1리 1044-2	767-5200	15:00-20:00 (목,일)	김창혁
15	중앙꿈쟁이	205	5,747	2012.07.27	서귀포 YWCA	서귀포시 서귀동 269-4	070-4548-1409	13:00-20:00 (토,일) 10시-18시 (월,공휴일)	이신선
16	불기	225	3,655	2012.12.03	제주치과 의사신헌	제주시 오남로 92	747-0551	10:00-18:30 (토,일) 11:00-17:00 (월)	신용래

2013년 사업진행 일정

일정	주요추진내용
1월	임시총회 / 운영비 감사 / 회계 및 예산작성 실무교육
2월	정기총회 / 제1차 운영위원회의 / 심리치유 그림책원화 순회 전시
3월	제2차 운영위원회의 / 도서관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실무자교육(한라도서관 연계)
4월	아트리지 '디딤돌사업' 선정 작은도서관 워크숍(제주예술문화재단 연계) / 도서관 책잔치(제주공공도서관협의회 주관) / 추가경정예산 추가보조금 신청
5월	도서관직원 및 자원활동가 교육 / 관계기관 방문
6월	다산북스 기증도서 배부계획 회의 / 자문위원회의 / 소식지 발간준비
7월	소식지 발간 및 배부 / 작은도서관 및 관계기관 순회 / 다산북스 기증도서 작은도서관 배부 / 홍보물 제작 / 회장단 회의 / 어린이기자단 공모 문서수발 및 회계교육, 우수사례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실무자교육(한라도서관 연계)
8월	순회사서 파견 / 어린이기자단 운영 / 찾아가는 작은도서관학교 개강 / 임시총회
9월	도서관친구(자원봉사동아리) 조직 및 지원도서관친구(자원봉사동아리) 조직 및 지원 / 작은도서관 책잔치 행사 기획 및 운영(한라도서관 연계)
10월	우수사례 도서관 탐방 및 전국평생학습박람회(제천) 참가 / 제3차 운영위원회의 / 전국도서관대회 참가
11월	도서관운영자 및 실무자 워크숍
12월	자문위원회의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본 협의회는 지난 2013년 2월 14일에 15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형꿈틀작은도서관 1층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장동훈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2년 사업·결산보고, 2013년 사업 및 예산심의, 협의회규정 개정, 사립작은도서관 신규가입여부, 임원선출, 2012년 특별회계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3대 회장으로 장동훈회장이 연임되었으며, 부회장으로 김순실 홍익작은도서관장이 선출되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회장을 포함한 10명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직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그동안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한 송순일 사무국장의 송별회와 차미경 신입사무국장의 환영회를 겸한 저녁만찬에서 회원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의회 제3대 임원진 구성 현황

임기

- 2013년 2월 ~ 2015년 1월(2년)

회장단

- 회 장 : 장동훈(전 도의원)
- 부 회 장 : 김순실(홍익작은도서관장)
- 감 사 : 김정숙(오라참꽃작은도서관장)
송춘화(보목꿈터작은도서관장)
- 사무국장 : 차미경

운영위원

- 장동훈(회장)
- 김순실(부회장, 홍익작은도서관장)
- 송춘화(감사, 보목꿈터작은도서관장)
- 김정숙(감사, 오라참꽃작은도서관장)
- 양민숙(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장)
- 이신선(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장)
- 오선심(노형꿈틀작은도서관장)
- 김종관(세화갯머리작은도서관장)

- 오홍남(상창바람소리작은도서관장)
- 차미경(사무국장)

자문위원

- 고병률(제주도서관 자료지원부장)
- 김학준(청어람도서관장)
- 박상수(제주관광대학 평생교육원장)
- 최종석(전 제주대학교도서관 사서)

“도서관 책잔치” 지역주민을 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의회는 지난 4월 3일(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13 도서관 책잔치'에서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라서관 잔디마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가족 및 집 관련 그림책 전시회'와 '내 손으로 똑딱! 우리 집 문패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책을 통해 가족과 집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협의회 소식

아트리치 ‘디딤돌’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인프라 형성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하는 아트리치 ‘디딤돌’사업에 2012년 3개의 작은도서관에 이어 한 곳이 추가되어 총 4개관이 선정됐다. 아트리치 ‘디딤돌’사업이란 도 내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가 미흡한 소외지역의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문화예술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담당자와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기획자, 강사, 문화활동가 등)이 협업하여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13년 아트리치 ‘디딤돌’사업에 선정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문패가 있는 우리마을’을, 보목꿈터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 간 꼬마화가’를, 봉성새별작은도서관은 ‘봉성리 문화시네마’를, 홍익작은도서관은 ‘샌드아트와 그림책의 따뜻한 만남’을 기획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유대관계 형성 및 지역문화의 인프라가 마련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POP교육으로 생동감 넘치는 도서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매주 월요일(10시~12시) 총 8회에 걸쳐 도서관직원 및 자원활동가 대상으로 POP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으로 도서관프로그래밍 운영이나 행사 시 홍보효과는 물론 도서관 곳곳에 POP로 꾸며진 안내판은 도서관의 딱딱한 분위기를 밝고 생동감이 넘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육을 시작으로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서관 사서와 자원활동가가 교육받은 것을 도서관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소식

삼양원당작은도서관



삼양1동 1647-4번지 마을회관 2층에 위치한 삼양원당작은도서관은 2004년 12월 27일 개관하여 9,000여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수는 월 370명 정도이다. 독서실도 운영하여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소년 이용자가 가장 많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유도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책이 있는 미술교실(부채만들기, 노트만들기, 슬리퍼만들기)과 표현의 발달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북아트, 종이접기 교실, 다양한 색깔과 소리를 통해 오감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요리교실이 운영 될 예정이다. 원당작은도서관은 편안한 쉼터에 재미있는 볼거리를 보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작은도서관 소식

홍익작은도서관



2013년 홍익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내용

순	프로그램명	일정	대상	회기	강사
1	도서관에서의 영화여행	2월~매주 토	지역 어린이집 아동 및 도서관 이용자	주1회	직원
2	책과 음악이 만나면..	2월~매주 금	도서관 이용자	주1회	직원
3	책과 놀자	3월~	지역 어린이집 아동 및 도서관 이용아동	수시	자원봉사자
4	독서문화 프로그램 “작가와 의 만남”	7~8월중	아동 및 부모님	주1회	동화작가 (미정)
5	앵그리버드 시간표 만들기	2월중	초등저학년 (20명)	주1회	풀잎문화센터 김수연선생님
6	아동미술프로그램 (광목천색연필화)	3월중	초등고학년 (15명)	주1회	풀잎문화센터 이민정선생님
7	책속에 북아트 (앨범 만들기)	6월중	초등고학년 (15명)	주1회	풀잎문화센터 이민정선생님
8	책속에 북아트 (딱지책 만들기)	4월중	미취학 및 초등저 (20명)	주1회	풀잎문화센터 이민정선생님
9	냅킨아트 프로그램 (커피함 만들기)	6월중	도서관이용 부모님 (15명)	주1회	풀잎문화센터 최미주선생님
10	캘리그라피	9월~10월중	부모님 (15명)	주6회	풀잎문화센터 김초은선생님
11	항아리 만들기	11월중	부모님 (10명)	주2회	풀잎문화센터 김수연선생님
12	호일 그림그리기	8월중	미취학 및 초등저 (20명)	주1회	풀잎문화센터 이민정선생님
13	퀼트 (곰돌이 필통)	5월중	부모님 (15명)	주1회	풀잎문화센터 문오금선생님
14	펠트 (곰돌이카드지갑)	4월중	부모님 (15명)	주1회	풀잎문화센터 강양옥선생님

*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일정과 시간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라참꽃작은도서관

- 비폭력대화법에 의한 공감 연습법에 의한 NVC에 의한 갈등 중재자 최정애강사
 - 매주 수요일 오후7시~ •참가비 : 월 6만원 문의: 010/9021/0861
- 대안교육잡지 민들레 읽기 모임
 -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을 여는 민들레책읽기 모임입니다.
 - 매월 1회 첫 목요일 이른 10시~ •참가비 : 무료

오라참꽃작은도서관 7~8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요일	일정	대상	인원	재료비 / 기타
교실박수학(창의력증진)	토	11:00 ~ 12:30	초등고학년	10	재료비 40,000원 (2개월)
책속에 오만가지공예 (비즈, 클레이, 펠트, 종이죽)	토	11:00 ~ 12:00	7세이상	10	재료비 40,000원 (2개월)
주말 공예교실 (비즈, 리본, 칼라클레이등)	토	11:00 ~ 12:30	성인	10	재료비 30,000원 (1개월)
탱그램 칠교놀이	토	14:00 ~ 14:50	5세 이상	10	재료비 30,000원 (1개월)
오감독서 종이접기	토	15:00 ~ 15:50	5세 이상	10	재료비 30,000원 (2개월)
미술심리치료	목	16:00 ~ 17:00	아동, 청소년	10	재료비 50,000원 (1개월)
임산부 태교 종이접기	목	14:00 ~ 15:00	임산부	10	재료비 30,000원 (1개월)
종이접기 자격증반	목	14:00 ~ 15:50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학생 및 강사회망생	10	문 의 010-6649-2800



노형꿈틀작은도서관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이 위치한 노형동 지역은 대형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도내 최고 인구밀집 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는 많으나 이 욕구를 충족시킬 문화·복지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시설의 충족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친근한 독서·문화·교육의 공동체 공간으로 어린이 독서 환경을 개선하고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하게 되었다.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은 2008년에 개관하여 10,050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도내 공립 작은도서관 1호로 아이들의 꿈이 커가는 모습을 그림책에 옮겨 놓은 재능기부도서관이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문화탐방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타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과 자원활동가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해 다양한 장르의 복합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꿈틀사랑(도서대출·반납 및 프로그램 운영), 책읽는 맘(견학아동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올랴라 통기타 (홍보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동아리 운영을 통해 지역민과의 교류와 재능기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명	일정	대상	회기	강사
이야기 풍동 동화나라	매주 토요일 10:00~10:50	7세	그림책 읽어주기, 만들기 등을 통해 유아들이 동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교육	년중
	매주 토요일 11:00~11:50	5~6 세		
오물락 조물락 손으로 만들어요	매주 토요일 10:00~10:50	5~6 세	칼라클레이를 이용하여 손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작품완성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에 접근함.	년중
	매주 토요일 11:00~11:50	7세		
꿈키 독서논술	매주 토요일 13:00~13:50	초등 1~3학년	책 읽기를 통해 세상을 만나는 시간으로 책의 내용을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줌.	년중
이야기로 만나는 한국사(역사논술)	매주 토요일 14:00~14:50	초등 3~5학년	역사와 문화를 통해 한국사 속 인물, 사건 등을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논리적인 사고 및 표현력을 길러줌.	년중
꿈틀 신나는 통기타 교실	매주 화요일(중급) 10:30~11:30	지역주민	책과 음악의 함께 만나는 시간으로 이론과 통기타체험을 통한 성취감에 접근함.	년중
	매주 금요일(초급) 10:30~11:30			
몽치들의 동화구연	매주 화요일 17:30~18:20	유아 6~7세	동화속 이야기를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창의적 발문 및 신체표현 등, 자연스러운 접근법 제시	년중
	매주 금요일 17:30~18:20	초등 1~3학년		
부모역할교실 자기주도학습방법	매주 화요일 10:00~12:00	지역주민	자녀와의 대화법 등 부모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 및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법에 접근함.	6개월
떠나는 신문여행(NIE)	매주 목요일 16:30~17:20	초등 1~3학년	신문자료를 활용 어휘력 신장 등 프로그램 단위별 단기 교육 목표로 접근함.	년중
꿈틀 시네마(영화상영)	첫째, 셋째 토요일 (15:00)	이용자 및 지역주민	노형꿈틀관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도서관의 향기를 느껴봐요 ~~~	년중

와산매실작은도서관

반갑습니다.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와산매실작은도서관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산매실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해 쾌적한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언제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평생교육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과 아동놀이방을 소유하여 지역 아동·청소년의 대화와 소통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총 6200여권의 책을 보유, 그 중 아동·청소년 장서가 3000여권으로 아동·청소년학습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제공 처로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을 돕고, 아동의 정서함양에 중요한 독서기회를 제공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지식정보사회에 발맞추어 모두가 핵심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목꿈터작은도서관

아름답고 조용한 농·어촌 도서관으로 2005년 새마을문고로 시작하였으나, 환경적 제약함과 운영비의 난조에 어려움을 겪던 중 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2009년 작은 도서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정적인 도서관에서 탈바꿈하여 아이들이 놀이공간으로서의 도서관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주민들의 사랑방과 같은 쉼터와 아이들의 꿈터로서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통해 우리아이들에게 꿈이 자라는 터를 마련해 주고자 탄생된 곳이다. 작은도서관은 정적인 공간에서 동적인 공간으로~~, 주민들이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휴식처로, 에너지를 재충전 하는 곳으로, 서로 가르쳐주고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때 궁극적으로 도서관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 되리라 본다. 우리 보목꿈터작은도서관도 문화공간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자 한다. 한지공예, 독후활동, 바둑교실, 미술교실, 풍선아트, 퀼트, 미니정원 만들기, 압화 공예, 뜰어 만드는 세상, 연극교실, 우수 교실, 중국어학습, 영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문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후원하는 "아트리치 디딤돌" 사업을 2012년도이여 2013년도에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도서관 벽에 우리 마을의 모습을 담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도에는 도서관으로 간 꼬마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5월 11일부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7월에는 노인 분들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다. 도서관이 2층에 있어서 다소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던 분들과 도서관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흐뭇하다. 9월에는 엄마들이 참여하는 벽화그리기 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상창바람소리작은도서관



바람이 분다.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니 누군가는 안다. 때로는 크고 험하게, 때로는 살짝 꼬깔만 스칠 정도의 기운이다. 그 묘한 것이 슬그머니 마을을 바꾼다. 그런 기운 가운데로 난 작은 돌담길을 지나면 네모반듯한 상창리 복지회관 2층, 바람소리 작은 도서관이 있다. 한번 도서관 걸음을 할라치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등 어른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열악했다. 아이들에게 도서관 가는 일은 박물관이나 관공서 견학을 하는 수준의 연례행사였다. 어떻게든 아이들과 책을 가깝게 하고 싶다는 지역의 바람은 처음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싹을 틔웠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상창리 어르신들의 배려가 보태진 결과였다. 복지회관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은 2008년 부녀회공부방으로 시작되었다. 복지회관 2층 회의실 모퉁이 버려진 테라스를 증축 리모델링하여 공부방을 개설,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며 당번을 서고, 집에 있는 책들을 모으고, 공부방을 찾아오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이 간식과 책읽기를 시작한 것이 지금의 작은도서관의 모태가 되었다.

공부방은 2008년부터 1년간 운영되다 마침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이듬해 4월 '작은 도서관'이란 간판까지 달게 됐다. 동네 노인어르신들과 부녀회원들, 그리고 꿈을 먹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동네 꼬마들까지 신구의 절묘한 조화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지만 마을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사랑방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민하기는 하지만 더 많은 시간 마을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실제 그들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부녀회원 중에 누군가 어떤 취미를 배우고 싶다고 제안을 한다거나 남과 공유할 재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공간으로 '도서관'이 낙점된다고 한다.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작한소리'과학봉사동아리 형과 누나들의 과학실험 봉사, 부녀회 일원이 한지공예에 일가견이 있어 한지공예를 서로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바늘 가는데 실도 온다고 엄마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따라와 한지공예를 배웠다.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영어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5개 반을 만들어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는 등 내실을 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역사논술프로그램이라든지 미술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기회를 만들어 장기교실도 열어볼 생각이다. "장군" "명군" 외치며 아이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마을 전체가 함께 꾸려나가는 도서관 덕분에 마을주민들과 아이들이 공유하는 것도 많아졌다. 외동딸 ·외동아들로만 자랐던 아이들에게 언니 ·오빠 ·형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생겼으며 자연스럽게 아끼고 보듬어줄 동생들도 생겨났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 집안을 나을 줄을 몰랐던 동네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생김 또래집단이다. '내 것만을 알았지, '우리 것'을 몰랐던 아이들은 서서히 공동체 생활이 어떤 것이며 무엇을 나누고 함께 해야 하는 지를 스스로 알게 됐다. 책 하나를 고르더라도 동생에게 양보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생겼고 동생들은 '고마움'을 느끼게 됐다.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을 서로 믿고 맡기기 위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레 왕래가 늘어나고 서로를 더욱 잘 알게 된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다. 상창 바람소리 작은도서관은 그저 상창답게 꾸리는 것을 목적으로 동네 어르신들과 부녀회, 아이들이 함께 공존하며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꿈을 소복이 담은 차롱,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멀리 비양도가 보이는 금능 해변을 지나 마을 안 올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책과 함께 노니는 어린이들의 벽화가 그려진 건물과 마주치게 된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관장 양민숙)이다. 꿈을 담은 차롱이란 뜻의 이름처럼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에는 금능리 사람들의 꿈과 많은 웃음이 소복이 담겨 있다. 이 차롱은 퍼내면 퍼낼수록 점점 더 쌓이는 참 신기한 차롱이다.

금능꿈차롱도서관은 금능리 주민들의 꿈이 차롱처럼 씨줄날줄로 엮여져서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다. 도서관의 전신이었던 금능새마을문고가 금능꿈차롱도서관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데에는 새마을문고 회장단과 운영위원들, 어머니들의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의 커다란 소망을 모으고 엮어서 만들어진 곳이기에, 규모는 비록 작은 도서관이지만 그 어느 도서관보다 크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시시때때로 모습을 바꾼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가, 어머니들의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 멋진 공연장이 되기도 한다. 밤늦도록 불을 밝힌 도서관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는 한 가족의 풍경이 된다. 올레길이 지나가는 곳, 집과 집 사이에 오롯이 들어앉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바로 우리의 이웃집이다.

올해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에서는 2013 아트리치 '디딤돌' 사업(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문패가 있는 우리 마을>을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2년차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시화문패가 있는 우리 집'에서는 시 낭송 교실과 시 창작 교실, 미술교실을 운영하여 시화문패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둘째, '마음의 문패가 있는 우리 마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으로 책과 자연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고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시화문패가 있는 우리집'은 6월 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9일까지 진행되며(주 1~2회), '마음의 문패가 있는 우리 마을'은 7월 7일 개강하여 8월 25일까지(주 1회) 진행된다. 마지막 평가회는 11월 3일에 열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파자마파티', '테마도서전', '청소년독서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봉성새별작은도서관

2009년 12월 23일 중산간 고즈넉한 마을 봉성리에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봉성 새별작은도서관이 개관하였다. 봉성새별작은도서관은 개관이후 지역주민의 사랑방이자 아이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원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초등영어교실과 NIE 교실을 운영하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매주 금요일마다 방문하는 유진어린이집(장애아동 보육시설) 원아를 대상으로 한 동화구연을 운영 중이다. 매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영화 상영을 하고 있으며, 북스타트 운동을 통해 독서증진에 힘쓰고 있다. 여름방학에는 노형꿈틀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1박2일 독서캠프가 운영될 계획이다.

구성원들의 정체성 회복과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봉성새별인형극단은, 제주예술문화재단의 2012 아트리치 '디딤돌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어, 마을 행사뿐만 아니라 불우이웃기금마련을 위한 공연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연문화예술 활성화에 기반이 되고 있다. 2013년 디딤돌 사업에는 영상미디어사업도 추가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삼달리작은도서관

2010년 3월 12일 삼달리작은도서관 개관식이 열렸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8200만원이 투입돼 기존 공부방 시설을 추가로 리모델링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연면적이 110m2, 창서 수 2400여권, 열람석 20석과 컴퓨터 4대등을 갖추고 있다. 단순히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닌 문화·예술 공간,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마을주민들 뿐만 아니라, 제2올레 코스 근처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 또는 올레꾼들의 휴식처도 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린이들이 마을주민의 10%도 못 미치고 있어 북적북적한 도서관 안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인근에 학교 외에는 교육·놀이시설 등이 형성되지 않아 소수의 어린이들이라도 거의 매일 찾아주고 있으며, 가끔은 아이들이 맘껏 웃을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놀이터 같은 곳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학생·부녀회 대상으로만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아직까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작문교실을 실시하여 더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프/로/그/램/운/영

▶ 양초비누 만들기(월1회)

- 대 상 : 초등1학년~중학생
- 기대효과 : 자신감과 자기표현과 더불어 재미있는 놀이다.

▶ 아이클레이 활동(월1회)

- 대 상 : 초등학생
- 기대효과 : 다양하게 활용해서 만들어 완성되었을 때는 성취감도 느끼고 감성 발달은 물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놀이다.

▶ 뜯어 만드는 세상/스콜라스(주1회)

- 대 상 : 초등학생~중학생
- 기대효과 : 가위나 풀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게 조립하루 있는 장점, 학습적인 면에서 체험도 되고 퍼즐이라는 특성상 집중력 또한 기를수 있는 활동이다.

▶ 가베교구/만들기(주1회)

- 대 상 : 초등학생
- 기대효과 : 재미와 더불어 어린이들의 내재해 있는 창조성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정점이 있다.

▶ NIE/신문활용활동(주1회)

- 대 상 : 초등학생
- 기대효과 : 신문과 많이 접하면서 직접 느껴보고 생각하면 어린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된다.



세화갯머리작은도서관



갯머리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세화2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문화혜택의 기회가 열악하다. 이런 이유로 마을에서 문화예술과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 나아가 도시지역과의 문화적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2012년 1월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마을회관 2층에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 후 아이들이 돌봄 교실 및 도서관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책 원화전시회(4월), 난타강좌(5월~7월), 예쁜 머리핀 만들기과 부채 만들기(6월)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에는 독서캠프와 다도체험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의 인구수가 많지 않아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마을에서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학교 전·입학생 학부모를 둔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을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다. 그 덕분에 유·입인가가 조금씩 늘고 있으나, 농촌지역이다 보니 바쁜 일손에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적은 편이었다. 이에 도서관 운영시간을 주민들에게 편한 오후 늦은 시간에 맞추어서,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동광해바른작은도서관

사람이 오름으로 둘러싸인 제주 서부의 중산간에 위치한 작은 마을, 동광리의 아이들은 여느 농촌의 아이들이 그렇겠지만 자연에서 맘껏 뛰놀며 자라서인지 밝고, 건강한 표정과 순수한 마음, 창의적인 표현이 남다르다. 폐교된 학교에 자리 잡은 녹색 체험 마을의 푸른 잔디밭에서 맘을 흘리며 공을 차고, 어우러져 동네 한바퀴를 돌다가 매일 한번 씩 꼭 들르는 곳이 있다. 바로 이곳 해바른 작은 도서관이다. 2000년 마을문고로 시작되었다가 지난 2010년 '해바른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뀐 곳. 어린왕자가 그려진 담을 따라 도서관 입구로 들어서면 항상 몇 대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고, 파스텔 톤으로 동화 속처럼 꾸며진 도서관 실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만의 편안한 자세로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해바른작은도서관은 177.3m² 규모로 도서 열람실, 정보 사랑방, 독서실, 탕비실을 갖추고 있어서 아이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이웃집처럼 편하게 들를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해바른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매주 수요일 - 책 읽어주는 엄마

유아부터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어머니들이 좋은 그림책 2-3권을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항상 도서관에 비치된 책이었음에도 이 시간을 통해 읽혀진 뒤에는 더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찾아 보곤 한다.

▶ 매주 금요일 - 감성 쓱쓱 창의 쓱쓱 미술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연령이나 수준에 따라 난이도나 내용을 달리해서 진행하므로 어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 매월 첫째, 둘째 목요일 - 미술 및 풍선아트

미술은 창의력개발, 발표력증진, 대인관계개선, 주의집중효과, 자신감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하며 풍선아트 활동에는 유아를 동반한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해서 북적북적 활기찬 시간이기도 하다.

▶ 매월 셋째, 넷째 목요일 - 함께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소리 핸드벨

핸드벨은 6세 이상 유아도 코드를 보며 할 수 있는 음악 활동이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도 수준을 달리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으며 동광해바른작은도서관은 '도서관'하면 책만 읽고 조용한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해바른'이란 이름처럼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별이 드는 쉼터, 꿈터가 되고자 앞으로도 독서지도 프로그램 및 여러가지 단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은 과거 열람실 위주의 문고에서 체계적인 도서대출서비스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갖추고 지역의 모든 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2년 7월 27일 개관식을 갖고 서귀포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은 서귀포YWCA가 가지고 있는 지역인프라를 토대로 동화구연, 독서 강사 등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평생교육시설 운영 경험으로 어린이와 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사람' 중심의 작은도서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은 '시민 스스로 학습 가능한 커뮤니티공간으로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용자 개별 독서지도와 관리 등 독서의 생활화를 실현하고, 상가 집중지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작가와와의 만남', '북적북적 리사이클 마당'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복합문화 활동을 실현한다. 평일 한가한 오후에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사랑방으로 일요일 오전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도서관 놀이방으로 모든 세대를 위한 하지만 강한 꿈쟁이작은도서관만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소/개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도서관 놀이터 : 창의력 ·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책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으로 한지공예 등 체험형식과 독서블루마블, 리딩맨 등 게임형식으로 진행한다.
- 꿈쟁이 영화관 : 매주 일요일 오후, 가족영화와 어린이영화를 상영하여 가족단위의 도서관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한다.

▶ 독서프로그램

- 우독비(우리들의 독서비결) : 올바른 독서방법과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동화구연 : 발표력과 표현력을 중심으로 동화구연을 배우며 동화구연 대회, 길거리 공연 등 완성도 있는 구연 활동 등 무대경험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N I E : 교과연계 독서NIE, 신문으로 어휘력과 논리력을 기르고 북아트로 재미있는 창의력 활동을 한다.

▶ 동아리 활성화 지원

- 엄마들이 배우는 동화구연 : 성인동화구연 취미반을 운영하여 엄마들이 동화구연을 배우고, 동아리 를 꾸려 도서관내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 지역공동체활동

- 작가와의 만남 : '박재형', '정성현', '허덕희'작가 등 지역 출신의 작가들을 초청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책문화의 장을 만든다.
- 북적북적리사이클 마당 : 안 읽는 책과 물품을 교환 및 판매하는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리사이클 마당에 맞게 버려지는 책표지를 활용하여 가방과 바구니, 예단 봉투 등을 만드는 체험 활동을 운영한다.
- 책문화 행사: 개관 주년을 기념하여 지역공동체가 함께 축하하고 발전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 작은 발표회 : 매 분기 중강일과 연말에 결과물을 전시하고 발표하며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발표회를 진행한다.



두맹이작은도서관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실현

- 아동 및 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보호

- 생활친화적 독서 공간으로 제공하여 독서지도를 통한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

2013년 두맹이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계획표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정원	내용	운영기간
책이랑 놀자 (책읽기 토론)	매주 토요일 10:00~10:50	초 1~2학년	10명	책을 읽고 독후감 및 그리기를 통한 창의적, 논술적, 표현 능력 향상교육(책 읽기 / 쓰기, 토론, 놀이)	3월 ~ 6월 8월 ~ 11월
	매주 토요일 11:00~11:50	초 3~4학년	10명		
동화속그리기	매주 토요일 14:00~14:50	6~8세	10명	동화책을 읽어주면 함께 동화책의 장면들을 상상하여 그림을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교육	3월 ~ 6월 8월 ~ 11월
수학교실	매주 토요일 14:00~	초 4~6학년	5명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가는 시간	3월 ~ 6월 8월 ~ 11월
감성조절 원예활동	매주 화요일 16:00~16:50	초 2~4학년	10명	자연을 통해서 자기만의 정원을 만들고 감성을 부드럽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교육	3월 ~ 6월 8월 ~ 11월
English Academy(초급)	매주 월요일 14:20~15:00	초 2~3학년	10명	노래와 함께 배워가는 영어 교실	3월 ~ 6월 8월 ~ 11월
POP손글씨와 함께책나라로	첫째, 셋째 토요일 16:00~18:00	초5학년~학부모	10명	재미있는 글쓰기도 하고 손의 힘도 키워주고 예쁜 글씨도 배워보면서 통화의 나라로 들어갈 볼까요.	3월 ~ 6월 8월 ~ 11월
문화체험활동 (영화상영)	첫째 주 토요일 15:00(필요시 수시)	이용자	이용자	초등학생들에게 건전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애니메이션 영화상영 문화체험 프로그램	7월 ~ 8월
꿈을 따라!	7~8월 방학중 (연 1회)	이용자	이용자	두맹이 회관 하늘 공연장을 활용하여 각종 미술 등의 이벤트 제공	7월 ~ 8월
두맹이 독서백일장	11월 중(연 1회)	초등학생	초등학생	지정된 도서관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한 후 우수작을 선정하여 장학금 전달	11월 중(연 1회)
두맹이 작은전시회	12월 중(연 1회)	이용자 모두 참관	-	한 해 동안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꾸며 놓았던 아이들의 작품 전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중(연 1회)

알림마당

심리치유 그림책 원화전시회 안내

- 기간 2013년 2월 16일~
- 장소 도내 작은도서관
- 내용 각 그림책에 따른 원화 컷 수는 표 참조

도서명	원화	도서명	원화
말하는 소나무	10	깜장우산	5
죽어야 사는 나무	6	길 이야기	4
내 친구 아카시	7	몽당연필	5

작은도서관 설립에서 운영까지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시·도에서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문화부에 신청하면, 문화부에서는 조성지원계획을 시·도에 통보하고 도에서는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 대상 도서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시·도에 교부한다. 시·도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신청(보조사업자) → 사업심사(도지사) →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도지사) → 보조금교부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교부결정(도지사) → 사업시행(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상황보고 및 보조금 교부(보조사업자/도지사)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정산검사 이행(도지사) → 사후관리(도지사)

* 작은도서관을 설립 신청을 하려면 제주시청, 서귀포시 제1청사(구 남제주군청, 중앙로터리 인근) 종합민원실 민원창구에서 '도서관등록신청서'와 '시설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협의회회원 가입안내

본 협의회에 가입된 작은도서관은 공립 3곳, 사립 13곳입니다. 회원은 정기총회와 도서관 관련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 그리고 각종 교육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협의회와 회원 기관간의 연합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교류 등에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 협의회 소식지와 같은 각종 발간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도서관은 회원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 도서관등록증을 협의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운영위원회회의의 가입 승인절차를 거쳐 가입하게 됩니다.

후원회원 가입안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후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월 후원 약정금액 1천원, 3천원, 5천원 중 선택하여 후원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협의회 사무국 (Tel. 713-272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봉사활동(자원봉사활동) 인증센터로 등록하는 방법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란?

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는 법인·단체·시설·보건·의료·기업 등으로 사회복지자 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입니다.

관리센터 지정신청 자격

연간 활동 자원봉사자가 10인 이상인 각종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민간단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보건·의료·기업 등 (단,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내 사회사업실운영 또는 담당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있어, 순수한 비영리 자원봉사활동과 봉사실 - 적이 엄정하게 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함)

관리센터 지정절차

